Entertainment p/17

metro

메트로 2013년 10월 25일 금요일 www.metroseoul.co.kr

Sports p/20

한예슬 2년 만에 돌아온다

손흥민 챔스리그 2호 AS

국민연금 낼 돈으로 해외여행

NEWS p/17

중고생 패스트푸드 더 먹는다

NEWS p/03

ENTERTAINMENT p/17

손, 발 질환치료 왜 중요할까?

발가락질환 「무지외반증」 주의!

미니금속나사 교정 절골술로 치료가능
초기에 치료하면 치료만족도 높아

치료 전

치료 3개월 후

발가락 때문에 고민인 여성들이 많다. 특히나 맘에 드는 신발도 신을 수 없는 휘어진 발가락은 또다른 콤플렉스가 되고 있다. 신발도 문제지만 엄지발가락 뼈 있는 부분이 아픈 것은 더 문제다.

이처럼 무지외반증 치료를 미루다가 엄지발가락 부분에 뼈가 튀어나와 신발을 신어도 아프고, 걸을 때도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병명은 무지외반증이라 부른다.

무지외반증의 증상은 계속 아픈것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쑤실 때는 무척 아플 수 있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괜찮다가도, 추워지면 더욱 쑤시고 아프다. 오래 걸으면 발부터 허리까지 통증이 욱신거리기도 한다. 이러한 무지외반증도 수술하면 툭 튀어나온 부분 및 쑤시고 아픈 통증도 치료 가능하다.

여성들에게 발병 빈도 높아

오랜기간 하이힐이나 앞이 뾰족한 구두를 신는 여성들의 체중이 엄지발가락에 집중되어 발가락에 변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무지외반증은 높은 빈도로 발병하고 있다.

무지외반증은 정상적인 발의 보행이 힘들면서 무릎과 허리에도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그럼에도 발가락의 작은 부분이라 하여 질병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냥 체념한 채로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로 인해 무릎과 허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 고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치료 가능해

부산에서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엄지발가락은 인체에서 일종의 버팀목이자 지렛대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은 물론이고, 거동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해지면서 자세도 비뚤어져 신체 여러부분에 질환을 앓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엄지발가락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이동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부위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걷기에 있어 조그만 변화나 무리가 있으면 우리의 발은 신체에 즉각적인 이상 신호를 보내게 된다. 엄지발가락이 휘었다고 부르는 '무지외반증'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미루다 고통만 키우는 대표적인 엄지발가락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미니금속나사를 이용한 무지외반증 치료

상태가 심하지 않다면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교정깔창을 사용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변형된 정도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의 무지외반증의 치료는 〈미니금속나사 교정 절골술〉을 시행한다. 부산 당감동에 위치한 대한민국 정형외과 의원도 이 수술을 시행하는데 수술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엄지발가락 하단부위인 제1중족골 부위 한 곳을 절골해 엄지발가락의 위치를 바로잡는다. 이 때 뼈를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미니금속나사가 사용되는 것이다.

수술 부위에 맞는 미니금속나사를 선택해 부착하고 위치를 잡아주는 수술을 시행한다. 미니금속나사의 길이는 약 1.8cm 이내로 짧다.

이준호 원장은 "미니금속나사는 부작용이 적고, 제거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며 "수술 후 미니금속나사를 제거 할 필요가 없어서 2차수술에 굳이 필요없어 환자들이 선호하는 편"이라고 설명한다.

시술 시 주의할 점은 간혹 시술 후 부종이나 통증, 부정유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준호 원장은 돌출한 뼈를 제거하는 건막류 절골술, 중족골(발등뼈)의 변형을 교정하는 시술, 발가락뼈를 교정하는 시술, 늘어난 관절낭을 탄탄하게 만드는 '관절낭성형술' 등 네가지 수술을 복합적으로 시행하여 재발을 걱정도 적다. 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진다.

수술 후 회복되면 목발 없이 걸을 수 있다. 재활치료 및 회복이 빠르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부담도 덜었다.

이준호 원장은 '무지외반증이나 내향성 족지발톱은 엄지발가락에 가해지는 고통도 크지만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몸이 스스로 자세를 변형시키면서 균형을 흐트러서 생기는 합병증도 주의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는 교정이나 수술을 통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참기보다는 진단과 치료를 받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부산 대한민국 정형외과의원
문의 T.051)897-7582

※대한민국정형외과의원 홈페이지(www.대한민국정형외과.kr)를 통해 무지외반증, 지간신경종 이외에도 다양한 손과 발질환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오랜 경험과 수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질환과 발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수부클리닉과 족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고운손과 편안한발을 위한 치료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Entertainment p/16

'왕년에 놀던 언니' 김민정

metro
메트로 2013년 10월 25일 금요일 제2831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0

5관왕 놓친 박태환 MVP

"우리가 사자 잡았다" 한국시리즈 두산 먼저 1승 24일 오후 대구구장에서 열린 2013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삼성 대 두산 경기에서 두산은 7-2로 삼성에 낙승했다. 두산 김현수가 5회초 1사 상황에서 솔로홈런을 친 뒤 더그아웃에서 선수들과 기뻐하고 있다. <관련기사 21면> /연합뉴스

"갤노트3로 고기 골라보세요"

휴대전화·음향기기 등 노골적 광고 대신 실생활 속 무료 체험마케팅 각광

"부담 없이 제품을 체험해보세요." 체험 마케팅이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노골적인 광고 대신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제품을 느끼게 하는 실생활 마케팅이 각광받는 것이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젠하이저 뮤지카페. 분위기 있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 마시는 고객들로 붐비는 이곳은 언뜻 일반 카페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카페는 독일 음향기기회사 젠하이저와 커피전문점 달콤커피가 손잡고 지난 7월 문을 연 브랜드 체험 카페다. 매장 한 벽면에는 젠하이저 제품 120여 개가 가득 진열돼 있다. 커피 주문 후 신분증을 맡기면 원하는 헤드폰을 마음껏 빌릴 수 있다. 특별 청음 공간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박란진씨는 "평소 접하지 못한 고가 헤드셋을 이용하면서 제품에 대해 잘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젠하이저 관계자는 "카페와 제품 인지도가 함께 올라가는 등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현재 영국에서 '갤럭시 스튜디오 인 유어 라이프'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로맨틱 영화 '노팅 힐'의 실제 무대인 포토벨로 거리를 무대로 다양한 상점과 협약을 맺고 상황에 맞는 갤럭시노트3 기능을 다음달까지 선보인다.

영국 포토벨로의 정육점에서 고객이 갤럭시노트3를 통해 상품을 추천받고 있는 모습(위)과 젠하이저 뮤지카페 내부 /각사 제공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노트3의 성능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제품이 소비자의 일상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드는지 실제 체험을 통해 선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 업계는 체험 마케팅의 원조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찾는 명동의 일부 화장품 브랜드는 샘플 증정뿐 아니라 제품 체험존을 만들어 고객들이 매장 내 화장대에 앉아 풀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한다.

삼성경제연구소 이동훈 수석연구원은 "기업이 제품 특징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하는 것이 마케팅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또 "기업 간 경쟁력을 나타내는 제품 시장 점유율보다 소비자 대상 생활 점유율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어느 제품이 소비자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느냐가 관건인 만큼 실생활 체험 마케팅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한국사 9등급 절대평가

2017학년도 수능안 확정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확정돼 현재 중학교 3학년은 큰 혼란 없이 시험을 치를 전망이다. 다만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돼 시험 과목이 하나 늘었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이같이 확정해 24일 발표했다.

국어와 영어는 문·이과 공통 문제가 출제되고 수학은 문과 나형, 이과 가형으로 구분된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현행대로 2과목까지만 선택할 수 있다.

국·영·수에 수준별 A·B형 체제가 도입되기 전인 2013학년도 수능으로 되돌아가는 체제다.

교육부는 다음달 7일 시행되는 2014학년도 수능은 국·영·수를 수준별 A·B형으로 출제하지만 2015~2016학년도에는 영어 수준별 수능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첫 도입하는 한국사는 수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해 9단계 등급만 제공한다. 대학이 입학전형 때 수능 한국사 과목을 적극 활용하도록 재정 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수능일은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첫째 주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파 등을 고려해 11월 셋째 주로 정했다.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 학력기준은 폐지하지 않고 완화하는 선에서 대학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대학들의 정시모집 동일 학과 내 분할 모집은 예고대로 2016학년도까지만 일부 대형 학과에 한해 허용하고 2017학년도부터는 전면 폐지한다.

큰 관심을 끈 수능 문·이과 일부 융합 또는 완전 융합안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1학년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유리기자 grass100@

위태로운 '반일친중'

거지 수첩
김 유 리
<정치사회부 기자>

한국을 둘러싼 3강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자국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 없더라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을 경우 타국에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전범국'으로서 '사과'가 없었던 일본의 재무장화는 사실상 미국의 승인하에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세계 2위 국방 대국으로 뛰어오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을 앞세웠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반일친중' 노선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과는 3차례 회담했지만 일본의 정상회담 요청은 거부했다.

'반일친중' 노선은 단기적으로 유용할 지 몰라도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

한국의 중요 우방국인 미국은 꾸준히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요청을 언제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반도가 일본 자위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전쟁은 정치가 실패했을 때 벌어진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 중국 뿐 아니라 일본,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현 상황을 타개할 나침은 군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대화에 있다.

"내 사과를 받아줘" 어린이들이 '둘이 사과하는 날'이라는 뜻을 담아 애플데이로 지정된 24일 서울 중구 남산 한옥마을에서 열린 '2013 애플데이' 기념 행사에서 사과를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낼 돈으로 외유

보험료 장기체납자 30만명 1회이상 외국여행 · 34명은 5년간 100번 넘어

해외여행을 자주 다닐 정도로 여유 있는 일부 고소득층 중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 체납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총 체납액은 5조8532억원이며 체납 건수는 262만9000건이었다.

그중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조2764억원(73.1%)이며 체납 건수는 223만9000건(85.3%)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가입자 전체 체납액의 97%에 이르는 4조1505억원은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납액이었으며 장기 체납자는 전체의 70%에 달하는 156만8000명이었다.

특히 이런 장기 체납자 중에서 30만9013명(19.7%)은 최근 5년간(2009~2013년 7월) 한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9629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해외 출입국 횟수를 살펴보면 ▲100회 이상 34명 ▲51~100회 134명 ▲31~50회 543명 ▲11~30회 6621명 ▲2~10회 12만3337명 ▲1회 17만8344명 등이었다. 게다가 해외 출입국자 중에서 체납액 상위 100명의 명세를 확인한 결과 일부는 수십억원의 재산이 있는데도 고의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체납자 관리에 구멍이 뚫려있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를 연계해 일부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즉각 징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뉴스 & 뉴스

'노조 아님' 딱지 붙은 전교조 고용노동부의 교육부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공문을 보내 공식적으로 법외 노조화를 통보했다. 고용부는 '해직자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약을 개정하라고 전교조에 권고했으나 거부당한 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전교조는 '교사 인권 유린이자 헌법 유린'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 입구에 노동부가 발송한 공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사이버사령부 댓글 요원 3년전 국방부 파워블로거

● 국방부가 최근 인터넷에 정치글을 올려 논란이 된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 중 한 명을 3년 전 '파워블로거'로 선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민주당) 의원은 24일 "최근 군의 자체 조사를 받은 사이버사령부 요원 1씨가 2010년 국방부 선정 파워블로거 40인에 포함됐다"며 "J씨는 이후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으로 특채됐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트위터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을 비난하는 글을 195차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북한, 국감기간 외통위원 57명 개성공단 시찰 허용

● 북한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기간 개성공단 현장 시찰을 허용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오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동의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북한이 동의 입장을 밝힌 것은 우리 측 입장을 전달받은 이후 8일 만이다.

국감 기간 해당 상임위의 개성공단 시찰은 이번이 처음으로, 안홍준 외통위원장 등 57명은 오는 30일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북 "억류되있는 남한 주민 6명 오늘 돌려보내겠다"

●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 6명을 25일 돌려보내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북한이 조선적십자사 중앙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내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6명을 보내겠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돌려보내겠다는 6명의 신원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10년 불법 입국한 남한 주민 4명을 단속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어 이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공격헬기 코브라 부속 없어 놀린다

"여기기 우리 독도" 2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동중학교에서 열린 독도 교육용 지도 걸기 행사에서 학생들이 현관에 걸린 독도 지도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의 주력 공격헬기인 코브라(AH-1S)가 수리 부속이 없어 훈련도 제대로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된 '코브라 공격헬기 운용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이 1988년에 도입해 69대를 보유한 코브라 헬기는 2001년 미 육군에서 도태됐고 2002년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도 종료됐다.

이 때문에 수리 부속 제작업체가 생산을 중단하면서 육군도 178개 부속을 조달하지 못하게 됐다.

육군은 10년분 수리 부속의 일괄 구매를 추진했으나 수리 부속의 80%만 확보한 상태다.

육군은 "일부 부품의 교체 주기가 임박해 장공기의 정상 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필수 작동 검사와 긴급 작전 임무를 제외한 용사 및 시범 참가를 지양하고 있고 실비행 훈련도 최소화했다"고 국방위에 보고했다.

실비행 훈련을 하면 부품 교체 주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훈련을 확대한다는 것이 육군의 대책이다.

육군 관계자는 "대형 공격헬기(아파치) 도입과는 별도로 코브라와 500MD 등 노후한 육군 소형 공격헬기를 대체하는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트로기자 mkimin

'월평균 임금' 비정규직 142만원 vs 정규직 254만원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2만8000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254만6000원)보다 약 112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별과 연령, 교육 수준, 근속 기간, 직업, 산업 등을 동등한 조건으로 놓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분석해보면 11.8% 차이를 보였다.

즉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정규직이 250만원을, 비정규직은 220만원을 각각 받는다는 의미다.

/이재용기자 lye403@

귀신들의 담력 테스트 에버랜드 할로윈 호러 나이트 축제에 출연하는 저니 귀신, 구미호, 저승사자 분장을 한 출연자들이 24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담력충전을 위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승차거부하는 택시기사 면허취소

국토교통부가 승차 거부가 잦은 택시기사의 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2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택시발전법안에는 서비스 수준 향상과 관련해 승차 거부 시 면허 취소 조항이 들어있다"면서 "다음 달 중순쯤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차 거부 최초 적발 시 과태료를 물리고 2번째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안을 제안했다"며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범칙제를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요 승강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승차 거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윤종희기자 unique@

패스트푸드 섭취는 늘어

우리나라 중고생들이 과거에 비해 대체로 담배·술을 멀리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류 섭취는 계속 늘어 청소년들의 식습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7월 보건복지부·교육부와 함께 전국 중고생 7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조사'를 진행한 결과 흡연율이 9.7%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11.4%)보다 1.7%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2007년(13.3%)과 비교하면 3%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또 중고생 음주율도 지난해(19.4%)보다 3.1% 낮은 16.3%로 나타났으며, 2007년(27.3%)보다는 11%포인트 이상 급감했다.

중·고등학생 흡연율·음주율 추이

담배와 술을 찾는 청소년이 편의점 등에서 실제 구매에 성공한 비율을 뜻하는 '구매 용이성'의 경우 담배와 술이 각각 76.5%, 76.8%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 중 '1주일에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을 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35.9%로 지난해와 2007년(29.9%)에 비해 각각 2.3%포인트, 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여학생의 운동 실천율이 1년 사이 19.5%에서 23.4%로 3.9%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의 인기가 여전해 중고생들의 식습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에 세 번 이상 탄산음료를 마시는 청소년은 25.5%, 패스트푸드를 먹는 청소년은 13.1%로 지난해보다 각각 1.2%포인트, 1.6%포인트 상승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군인들도 취업전쟁 24일 남기도 고양 육군 9사단 사령부에서 열린 '제대군인 채용박람회'에서 군인들이 채용 게시판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고시 1차시험 3월8일

내년도 행정고시와 국립외교원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이 3월 8일로 확정됐다.

7급 공채 시험일은 7월 26일, 9급 공채는 4월 19일에 각각 치러진다.

안전행정부는 24일 201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5급 고등고시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은 1월 14~17일 ▲7급 공채는 5월 12~16일 ▲9급 공채는 2월 3~7일이다.

원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로 접수하면 된다.

/윤다혜기자 yth@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화가 피카소 태어나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화가 파블로 피카소가 1881년 10월 25일 스페인 말라가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피카소는 19살 때 파리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다. 청색시대와 장밋빛 시대를 거쳐 '아비뇽의 아가씨들'을 내놓으며 브라크와 함께 입체파 운동을 주도했다. 그는 가난했던 젊은 시절뿐만 아니라 만년 예술과 여성을 적절히 사랑했으며 역사상 피카소만큼 살아생전 부와 명예를 누린 화가는 극히 드물다. 말년에는 회화와 더불어 도자기에 심취해 많은 작품을 남겼다.

롯데호텔부산 '에너지 경영' 대상
롯데호텔부산 대표이사 송용덕은 지난 23일 한국능률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2013 글로벌 스탠더드 경영 대상' 시상식에서 에너지 경영 부문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어린이대공원 '주차 전쟁'

부산 어린이대공원 주변에서 내달부터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설공단은 내년 4월 어린이대공원 내 성지곡동물원 개장을 앞두고 공영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 현 공원 정문 입구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주차장 공사는 ㈜삼정랜드에서 맡아 현 307대를 주차하는 철골조 2층 구조를 6층으로 증축해 승용차 80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설공단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만 시행하는 시립도서관에서 연제구 경계 구간 700m 월드컵대로의 주차 허용(500면)을 평일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연지근린공원 인근 및 어린이대공원 주변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추가로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에코델타 수요예측 엉망"

민주당 경제감 민홍철 의원이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환경 피해에 사업 실패 시 수자원공사의 재정 상황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24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은 4대강 손실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수자원공사가 맡았는데 문제의 핵심은 6조원 사업비를 들여 자칫 실패하면 수공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수공이 타당성 조사의 근거로 삼은 미음지구의 경우 38%인 75만㎡가 현재 미분양 상태고, 인근 국제산업1단계지구는 33%인 100만㎡가 미분양됐다"며 "부지가 수공의 의지대로 분양될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소공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851

발행 인쇄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광학
편 집 국 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명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650 2100
독 자 센 터	02)721 9788

[illegible]

강서산단 출퇴근길 시름 던다

시내버스 노선 555번 신설…마을버스 6개 노선 조정·운행

부산 강서산단 근로자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강서산단 출퇴근 시간대 전용 시내버스 노선인 555번을 신설 운행하는 한편 7, 9, 9-1, 71, 148, 1, 520, 1007, 1010번 등 8개 시내버스 노선과 마을버스 6개 노선을 오는 26일부터 일부 조정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555번 시내버스 노선은 강서산단지역 근로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출퇴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철도 3호선 강서구청역을 연계해 서부산유통산단~화전산단~신호산단 입구(삼성자동차)~녹산공단 구간을 출퇴근 시간대에 각 3회씩 20분 간격으로 매일 6회 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천광 인근에 들어선 수산가공선진화단지 개장에 맞춰 7, 9, 9-1, 71번 노선을 수산가공선진화단지까지 연장 운행키로 해 수산 물류업체 근로자 및 이용객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도록 했다.

또 9, 9-1번 노선은 감천사거리까지 추가 연장, 감천항에서 신평 과정 방면 운행 노선과 환승할 수 있도록 했다.

장거리 중복 노선인 148, 1번은 운행 구간을 단축하는 대신 사상구 학장로~장인로, 북구 덕천주공아파트~벽산아파트, 금정구 장전동~금정구청 등 대중교통 이용 불편 지역을 추가 경유하게 된다.

520번 노선도 도시철도 1호선과 중복 구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하구 당리동 동매교사거리~신평1동 다대로 일부 구간을 경유토록 했다.

급행버스인 1007, 1010번 노선도 정관신도시 입주민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신규 아파트단지 및 정관산단 입구를 추가로 경유한다. 이와 함께 마을버스 노선도 일부 조정해 이용 승객이 적은 해운대구 1번은 운행을 중단하고 부산진구 11번은 회차 지점을 감로사 입구에서 화신아파트 입구로 변경됐다.

남구 8번은 대연고가교 진입을 제지하는 대신 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고, 해운대구 3번은 좌정교 유턴 구간을 없애기로 했다. 강서구 1, 17번은 가덕도 내외눌 연결도로 준공에 따라 마을 안까지 노선을 연장 운행한다. /뉴시스

사랑의 불씨 배달 24일 오후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서 경남정보대 총학생회와 교직원 등이 길게 줄을 선 채 저소득 가정에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이 대학 총학생회는 축제 경비를 아끼고 모금을 통해 모은 돈으로 연탄 2000장을 구입, 저소득층 14가구에 전달했다. /뉴시스

온천천에 노랑꽃창포길

내년 봄 온천천에 노랑꽃창포 꽃길이 열린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센터는 23일 부산 온천천 세병교와 연안교 사이 둔치 136㎡에 시민사랑 노랑꽃창포를 심었다.

이날 건협 부산센터 직원들과 함께 동래구청 녹지과 관계자 및 건협 어머니사랑봉사단이 노랑꽃창포를 심었다.

한국건협은 내년 한국건협 창립 5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온천천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 도지부에서 이달 말까지 '메디체크 건강 꽃길가꾸기' 사업을 펼친다.

노랑꽃창포는 수질 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5월에 피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꽃이 초록색의 긴 잎과 어울려 생동력을 주는 꽃으로 사랑받고 있다.

"학점 따고 시간 아끼세요"

영산대 온라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인기몰이
개인별 튜터 배정 등 우수한 교육인프라 갖춰

최근 100세 시대를 대비해 인생 이모작 등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영산대학교는 지역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100% 온라인 수업만으로도 대학원에 진학한다거나 편입학,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해 주목받고 있다.

영산대는 4년제 대학으로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최초로 교육부의 정식 인증을 거친 유일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다. 학점은행제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해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와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를 활용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영산대 원격평생교육원은 지난해 3월 개강한 이래 경영학, 부동산학, 교양(공고학, 심리학)등 다양한 학점 과정과 비학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8000명의 학습자들이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런 인기의 비결은 우수 강사진 구축이나 개인별 담당 튜터 배정을 통한 책임 지도와 같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꼽을 수 있다. 대학 측에서는 지역민들이 보다 발전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성이나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일대일 맞춤 학습설계 상담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역민들을 위한 혜택으로 수강 과목 수나 지역에 따른 소정의 수강료 특별 할인 혜택도 주고 있다.

영산대 이계석 평생학습본부장은 "평생학습 욕구가 증가해지고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업 전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과목들로 15과목을 개설했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이 시간을 아끼면서 지적인 부분도 충족시키고, 학점까지 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과정은 오는 11월 12일 개강하며, 11월 1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산대 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cb.ysu.ac.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1899-3090

/정하균기자 hk@metroseoul.co.kr

부·울 지적재조사 '덜컹'

기재부 사업예산 96% 삭감 재산권 침해 우려

부산·울산지역의 바른땅 사업 지적(地籍) 재조사가 좌초 위기에 빠져 국민 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낡고 부정확한 지적도를 첨단 디지털 지적으로 바꿔 국가 공간정보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적 재조사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 및 정부3.0의 핵심인 공간정보산업의 기초가 될 국책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재조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좌초 위기에 빠졌다.

24일 대한지적공사 부산·울산 지역본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지적 재조사 추진 사업비 841억원 중 800억원 이상을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여파로 부산·울산지역의 지적재조사 사업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부산지역의 지적 불부합지 비율은 전체의 32.5%로 전국 1위다. 울산의 비율도 전국 평균(14.8%)보다 높은 16.8%나 된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금전적 손해는 물론 실제와 다른 토지 경계를 둘러싼 이웃 간 분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의 계속 추진이 절실한 이유다.

한편 부산·울산지역에서는 지난해 8개 지구에서 1420필지의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22개 지구(5615필지)의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르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공청회·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의 동의와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 없이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적 재조사는 다른 국책사업과 달리 안정적 예산과 충분한 시간이 투입돼야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주민 및 관계자들은 "사업의 일시적 중단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사실상 포기한 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적 재조사 사업비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부산·울산지역 지자체들은 "국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당초 약속과 다르다"며 "국비 지원이 없으면 당장 사업을 백지화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30여 년 이상 지적 불부합지에 묶여 고통을 받았다는 홍민호(57·부산 동구 초량동)씨는 "결국 예산을 확정 짓는 곳은 국회가 아니냐"며 "지역 의원들이라도 나서서 예산을 다시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호소했다.

/정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대선주조 불꽃축제 성공 빈다

특별 후원금 기탁

부산의 대표 향토기업 BN그룹 대선주조가 올해도 부산불꽃축제를 후원한다.

대선주조는 지난 23일 부산시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와 협약식을 갖고 오는 26일 광안대교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부산불꽃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특별 후원금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선주조는 불꽃축제 당일인 26일 광안리 해변가에 대형 홍보 부스를 설치해 축제 관람객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즉겨운 게임을 벌이고 기념품을 나눠주면서 축제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조의제 BN그룹 회장은 후원금 협약식에서 "오직 부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지상 최대의 불꽃향연이 성공리에 무사히 치러지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향토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선주조는 부산불꽃축제의 주 취한사로 첫해부터 올해 9회까지 매년 수억원의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정하균 기자

BN그룹 대선주조 [illegible] 오는 주말 열릴 부산불꽃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주최 측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불꽃축제 광안리 주변도로 통제

올해 제9회 부산불꽃축제는 직할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더 웅장하고 화려해진다.

'50년의 사랑 부산'을 테마로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펼치는 이번 축제는 특화된 불꽃 '나이아가라', '칼라이과수', 25인치 초대형 불꽃 등 스토리텔링 불꽃을 연출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로 펼쳐지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국내·외 관광객 등 관람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행사장 주변 및 광안대로 교통 통제, 안전 단속요원 배치, 대중교통 증편, 주차장 확보 등 교통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불꽃축제가 개최되는 26일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도로를 통제한다.

광안대로도 부분 또는 전면 통제된다.

부산멀티불꽃쇼가 열리는 26일에는 광안대로 상층부는 오후 5시~11시, 하층부는 오후 7시30분~9시30분까지 각각 전면 통제한다.

불꽃축제 행사 기간 동안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도시철도의 증편 및 막차 시간도 연장된다.

세계 평화를 기원합니다 24일 오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제68회 유엔의 날' 기념식에 특가한 부산지역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6·25전쟁 참전국 국기를 이용해 '월드 피스'라는 글자를 만들고 있다. /뉴시스

금투협 부동산금융 특강

한국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직장인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말 금융투자 특강을 개최한다.

'알면 돈이 되는 부동산 금융투자'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 현황 및 전망과 함께 리츠, 부동산펀드 등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투자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강사로는 장팔연 현대증권 부전동지점 PB팀장이 나서며 강의는 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수강 신청은 e메일(domedc@kofia.or.kr)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051)667-9719

평화공원 국화전시회

남구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평화공원 중앙수변 주변에서 '2013 평화공원 국화전시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29일 오후 2시 이종철 구청장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동래원예고등학교와 함께 여는 이번 전시회에는 국화와 분재, 조화 등 약 1만여 점이 선을 보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윽한 가을날의 정취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구문화원 오륙도나눔봉사단과 문인미 시화 작품 전시, 체험 부스 행사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market index <24일>

코스피	2048.67 (+10.94)	코스닥	531.03 (+5.65)
금리	2.88 (+0.01)	환율	1061.00 (+5.20)

출렁한 환율…겁먹은 한국경제

美 테이퍼링 연기·외인 '바이코리아' 겹쳐 …전문가들 '시장개입' 찬반

달러당 원화 환율이 24일 장중 올해 최저 수준으로 밀리면서 원화 강세로 인한 국내 경기 위축에 대한 불안이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국내 수출 제조업의 타격을 막기 위해 서둘러 환율 방어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과 예전과 달리 환율 하락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으므로 외환시장의 시장 개입 효과를 재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20원 오른 1061원에 장을 마감하며 이틀 만에 1060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장중 1054.3원까지 하락하면서 지난 1월 15일에 기록한 연저점인 장중 1054.5원을 뚫고 더 내려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테이퍼링(자산 매입 규모 축소)을 연기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역대 최장기간 주식 순매수 행진에 나서고 국내 수출업체도 네고(달러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달러 약세, 원화 강세의 양상을 잇고 있다.

향후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외국인의 주가 매수와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손위창 현대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1050~1070원 선일 때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수자금 성격이 과거에는 환차익 성격이 강했다면 현재는 달라졌다"며 "아시아 국가 중 펀더멘털이 단단한 점에 투자 매력을 느껴 들어온 장기 투자성 자금으로 보이므로 앞으로도 순매수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지형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이달 말까지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이 가능해 보인다"며 "하지만 연준의 테이퍼링은 시기가 지연됐을 뿐, 언젠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달러는 (향후) 재차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화 강세가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가파른 원화 가치 절상은 큰 부담이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환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민기 도레가 들어오는 차입금에 대해 상환을 독려하고 외환 보유고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율 장중 연저점 경신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연저점이 붕괴되며 달러당 1054.3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달러당 1061.00에 마감한 환율 시세판. /연합뉴스

반면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원화 가치 절상에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 전반의 부가가치를 감소시키는 게 사실이지만 노동 생산성 증가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환율 하락에 대한 피해가 과거에 비해 작아졌다"고 진단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핼러윈 쿠키 받고 신난 꼬마 마법사들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 열린 키디 핼러윈 이벤트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쿠키를 선물 받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기업 '괘씸한 요금인상'

부채비율 낮추려 향후 5년 도로·수도·전기료 올릴듯

공기업들이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향후 5년간 도로·수도·전기 요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에 나섰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낸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요금 인상을 통한 자구 계획을 내놨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절반으로 줄여 연간 약 600억원의 추가 수입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총괄 원가(적정 원가+적정 투자보수) 회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기 요금 체계 개편 작업도 진행 중이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요금을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내년까지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를 분양해 1조2000억원을 거둬들이고 항만시설관리권을 1조3000억원에 매각한다.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의 원가 연동제를 적용 중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요금 인상 추진 소식에 시민단체들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인한 적자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국감에서 드러난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 등으로 총 11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는 지난 4년 사이 직원들의 성과급을 225%나 올렸으며, 한전 사장은 1억3000만여 원, 가스공사 사장은 1억8000만여 원 등 억대 성과급을 챙겼고 임직원들에게 나눠준 성과급도 3500억여 원에 달했다.

/이재훈기자 | yi4038@

동양CP 투자 800명, 동양증권 사기혐의 고소

동양 투자자 800여 명이 동양증권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동양그룹의 계열사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채권자들은 조만간 검찰에 동양증권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 두 회사의 CP는 신탁 상품이므로 개인 투자자가 샀더라도 채권자는 동양증권으로 돼 채권자협의회에 개인 투자자가 들어가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터넷 피해자 모임 카페를 중심으로 고소에 참여할 투자자 800여 명이 모였다. /김현정기자

12월 카드·캐피탈사 대출금리 인하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대출금리가 오는 12월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와 캐피탈사로부터 제2금융권 대출금리 모범규준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고 오는 12월부터 금리를 내리라고 지도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이들 업계에 모범규준을 내려보냈다.

제2금융권 대출금리 인하는 카드의 경우 카드론을 비롯해 현금서비스와 할부 할부 수수료율 부분이, 캐피탈은 개인 신용대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드사 등은 금감원에 제출한 이행 계획서에서 내규에 반영하겠다는 정도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범규준을 준수한다면 대출금리가 0.5%에서 최대 2%까지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그린기자 mina@

경조사비 144만원 허리 휘는 직장인

직장인들이 한 해 경조사비로 평균 144만원을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직장인 9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은 한 달에 2번씩 경조사에 참석하고 1회당 평균 6만원씩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연간 24회 경조사에 참가해 144만원을 쓰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보다 경조사비가 늘었다"는 응답이 33.9%로 "줄었다"(4.3%)보다 무려 8배 가까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직장인의 대다수(95.8%)는 경조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경조사비가 부담스러워서"(45%, 복수 응답)와 "친분이 없어도 참석해야 해서"(4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조사가 너무 많이 몰려서"(31.5%), "경조사 참석으로 시간을 빼앗겨서" 등을 꼽았다.

/어규정기자 service@

뉴스 & 뉴스

부실공시 '상장폐지 전조'

● 불성실 공시를 2차례 이상 지적받은 상장사들의 65%가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강기정(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 공시로 2차례 이상 제재를 받은 기업이 상장폐지된 비율은 164개 상장사 중 106개사로 64.6%에 달했다. /김현정기자

523만원에 행복기금 단비

● 국민행복기금 수혜자가 평균 부채 1000만여 원에 6년간 연체된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이사는 24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성과 점검 세미나에서 행복기금 이용자의 평균 총 채무액은 1189만원, 연체 기간은 5년10개월이며 연소득은 523만원가량이었다고 분석했다.

/김은지기자

男다른 여성전용보험 쏟아진다

임신·출산에 남자보다 긴 수명 등 특성 반영 '손짓'

주요 보험사들이 여성만을 위한 전용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여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착안해 여성 전용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최근 여성에게 자주 발생하는 중증질환을 평생 보장하는 '교보여성CI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사망, 중대한 질병은 물론 여성 특정 암에서 임신, 출산에 이르기까지 여성에게 빈번하게 발생되는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는 점이 특징. 자궁암이나 난소암, 중증루프스신염,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류머티즘관절염 같은 여성 특정 질병을 집중 보장한다.

이보다 먼저 동양생명은 지난달 여성 전용 연금보험'(수호천사 행복한여자사랑연금보험)'을 내놨다. 남성에 비해 평균 수명이 약 7년 길다는 점을 반영한 상품이다. 일반 연금보험과 달리 연금 개시 전에는 여성 관련 질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연금 개시 후에는 다양한 연금 지급 형태를 선택해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20~30대 여성들을 위한 건강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LIG손해보험은 오는 30일 20~30대 가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자궁 관리법과 건강 상식을 제공하는 미니클래스 '튼튼! 아기집 짓자'를 개최한다. 결혼과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7일까지 LIG손해보험 페이스북(www.facebook.com/ligstory)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맞벌이 여성들이 크게 늘면서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여성 전용 보험을 잘 활용하면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min1@metroseoul.co.kr

'그녀들의 피자' 토핑마다 개성 가득 미스터피자 차… 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서울연희전문학교에서 제7회 그녀들의 피자 콘테스트 본선을 개최, 셰프 복장을 입은 본선 진출팀들이 직접 만든 피자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석유공사 '헛 삽질'

10조 쏟아붓고 수익 230억

한국석유공사가 이명박 정부 5년간 해외 자원개발에 10조원을 쏟아붓고도 수익은 23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4일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2년 6개 생산 개발광구에 96억7700만 달러(약 10조2382억원)를 투자했지만 벌어들인 수익은 2180만 달러(약 230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이 기간 미국 앙코르, 페루 사비아, 캐나다 하베스트, 영국 다나, 카자흐스탄 인티우스, 카스피안 광구를 잇따라 사들였다. 특히 다른 5개 광구에서는 8억9000만 달러(약 9416억원)의 수익이 났지만, 캐나다 하베스트의 경우 8억6800만 달러(약 9183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구잡이로 추진된 해외 자원 개발이 부실로 이어지면서 석유공사 부채도 2008년 5조원에서 지난해 19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재영기자 ljy1431@

뉴스 & 뉴스

강남재건축 매입후 62% ↑

● 서울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가격이 취득 시점 대비 평균 62.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부동산 개발 전문업체 피데스개발에 따르면 재건축이 예정된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지역 아파트 소유자 등기부등본과 시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소유자가 취득한 시점 대비 현재의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이 같이 나타났다. /김민지기자

롯데마트 "겨울이불 30% 할인" 롯데마트가 24일 중구 봉래동 서울역점에서 겨울 이불을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 행사는 전국 97개 롯데마트 매장에서 진행된다. /뉴시스

3분기 주택거래량 절반 '뚝'

● 올해 3분기 주택 거래량이 전분기와 비교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 3분기 주택 거래량은 총 14만2927가구다. 2분기 거래량인 29만9546가구와 비교하면 15만6619가구 감소했으며 이는 2분기 거래량의 47.71% 수준이다.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은 6월 말로 취득세 추가 감면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김민지기자

삼성전자 '나눔빌리지' 남아공에 첫 둥지

저소득국가에 마을형태로 의료·교육·편의시설 구축

삼성전자가 저소득 국가에 마을 형태로 의료·교육·생활편의시설을 구축해 빈곤과 질병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까지 돕는 '삼성 나눔 빌리지'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첫 시도로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태양광을 이용한 진료센터, 학교, 조명·발전기 등을 한 마을에 집중시키는 형태로 '삼성 디지털 빌리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소재 갤러거 에스테이트 콘퍼런스 센터에서 남아공 정부 관계자,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 디지털 빌리지 시범 행사를 실시했다.

삼성 디지털 빌리지는 태양광을 이용하는 이동형 의료차, 원격진료센터, 인터넷스쿨, 발전기, 랜턴 등의 시설로 구성된다.

삼성전자가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위치한 갤러거 에스테이트 콘퍼런스 센터에서 삼성 디지털 빌리지 시범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태양광 원격진료센터는 환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서버를 갖추고, 대형병원과 화상회의로 진단과 처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내과 전문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주변 마을 곳곳을 돌며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형 의료차는 눈·귀·치아 진단과 혈액 분석 등 장비를 갖추고 있다.

태양광 인터넷스쿨은 삼성전자가 아프리카 지역에 보급한 대표 교육 시설로 태양광에서 얻은 전력으로, 대형 디스플레이와 노트북을 구동시켜 양방향 멀티미디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보급할 발전기는 마을 학교, 병원, 경찰 관공서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태균기자 ksa1@

차가운 부동산시장 위법 행위만 '후끈'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나 부동산 관련 위법 행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기선(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적발한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 행위는 지난 2011년 2553건에서 2012년 2909건으로 356건(13.9%) 늘었다.

이 기간에 검거된 인원도 4855명에서 5228명으로 373명(7.7%) 증가했다.

지난해 위반 행위 관련 법률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76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836건, 주택법 492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15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90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39건), 경남(246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신도시 건설이 지속되는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건축 등 불법 행위가 많았고, 투자자들을 등치는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렸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헐값에 사들여 개발할 수 있는 땅인 것처럼 속이고 10배가 넘는 가격에 되판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2012년 당국에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6732건 중 절반 가까운 3066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오현길기자 hiuon1@

뉴스 & 뉴스

야외극장서 영화보며 캠핑 24일 경기 양평군 한화리조트를 찾은 여행객들이 야외 극장에서 최신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무비글램핑 상품을 체험하고 있다. /뉴시스

양방향 'B tv 라이브 퀴즈'

● SK브로드밴드는 자사 IPTV인 'B tv'에서 야구 중계를 보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양방향 게임 'B tv 라이브 퀴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B tv 라이브 퀴즈는 B tv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프로야구 경기를 시청하면서 투타 승부, 도루 타이밍, 득점 상황 등의 퀴즈 정답을 맞히는 게임이다. B tv 라이브 퀴즈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티스토어'에서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재영기자

특송 파일 악성코드 주의보

● PC에 저장된 문서를 볼 수 없게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겠다는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종합 보안 전문기업인 SGA(대표 은유진)는 '크립토로커(cryptolocker)'라는 이름으로 문서나 사진 등을 암호화해 100시간 내 300달러를 내면 암호를 풀어주겠다는 신종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발견된 악성코드는 페덱스나 TNT 같은 유명 특송업체에서 통관 문제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첨부 파일을 열어보라는 형식으로 파일 오픈 시 악성 파일에 자동 감염된다. /정기종기자

클라우드 트래픽 급성장

● 클라우드 저장 방식이 대세가 될 전망이다.

미국 다국적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 시스코는 24일 '글로벌 클라우드 인덱스 2012~2017' 보고서를 내고 2017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 트래픽(자료 전송량)이 7.7ZB(제타바이트, 약 1조GB)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클라우드 트래픽이 4년간 연평균 35%씩 성장해 2017년에는 5.3ZB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박성훈기자

"써보니 굿" 여전한 블로거 낚시글

공정위 상업 활동 제재 불구 수수료 받는 '제품 홍보원' 행위 빈번

"전문 블로그에 올라온 신제품에 대한 정보, 모두 믿어도 될까?"

정부가 직접 나서 전문 블로거들의 상업적인 활동을 제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같은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3월 블로거의 상업적 행위에 대해 인터넷 포털사(네이버), 한국블로그산업협회 등과 함께 모니터링해 게시물 삭제, 이용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재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제재에도 여전히 일부 블로거들은 유명하단 점을 이용해 업체로부터 해당 제품의 후원 및 사례를 받고 홍보성 글을 써주는가 하면, 판매처로의 연결에 역할까지 도맡아 문제가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뷰티, 패션, IT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전문 블로그를 들여다보고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각 제품을 출시한 회사나 언론에선 단편적인 소개만을 해주기 때문에 직접 제품을 사용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장단점을 전문 블로거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를 믿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일부 네티즌들은 사용기와 제품의 품질 등이 다르다며 낭패를 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 IT 전문 블로거 이모 씨는 "전문 블로거들은 이를 생업 삼아 활동하는 상황인데 생계를 위해 어느 정도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반면 자동차 전문 블로거 장모 씨는 "일부 유명 블로거의 경우 기업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으로 월수입이 500만원 이상 된다더라"면서 "유명하단 점을 이용해 네티즌들에게 허위성 정보를 제공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역설했다.

장씨는 이어 "일부 파워블로거가 소규모 홍보업체처럼 변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로봇 종묘제례악 2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로보월드 2013에서 로봇들이 종묘제례악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폰에 안달내던 이통사들 '변심'

국내 제품이 상품성 커… 5S·5C 출시행사 시큰둥

매년 새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 떠들썩하게 마케팅을 했던 SK텔레콤과 KT가 올해는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25일 아이폰5S·5C를 출시하는 양사는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매년 새벽까지 고객들을 줄서게 하고 큰 이벤트를 열었던 모습과는 180도 다르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아이폰이 이제는 돈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사를 통틀어 이들 제품의 초도 물량은 1만 대 수준이다. 아이폰3G·4가 나왔을 때와 달리 지금은 삼성 갤럭시를 필두로 한 국내 브랜드 제품이 오히려 상품성이 크다는 평가다.

게다가 이통사가 밀고 있는 LTE-A 서비스를 이번 아이폰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SK텔레콤은 아이폰5S와 5C 모델을 '착한기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착한기변은 번호 이동이 아닌 기기 변경으로도 기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다만 KT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한다.

1년 후 잔여 할부금과 할인반환금 없이 자기 아이폰으로 교체할 수 있는 '2배 빠른 기변', 기존 단말기를 반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올레 그린폰 매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는 KT가 기존 LTE망에서도 LTE-A 속도를 누릴 수 있는 '광대역 LTE'를 선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LTE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아이폰이지만 LTE-A급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자랑하는 셈이다. /박선옥기자 zen@

세계 첫 '3D프린팅 펜' 개발자 국내 시연회

3D프린팅 펜으로 공중에 그림 그리는 모습이 다음달 국내 최초로 선보여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기술진흥원 주최로 다음달 14일부터 개최되는 '테크플러스 2013'에서 세계 최초의 3D프린팅 펜 '3두들러' 개발자 맥스 보그는 제품의 개발 스토리 강연과 시연을 진행한다.

맥스 보그는 '와우위'라는 회사에서 우선 원격 로봇인 로비오를 개발했고, 피터 딜워스와 미국 장난감회사 '우블워크'를 공동 창립했다. 이후 세계 최초의 3D프린팅 펜 '3두들러'를 개발했다.

3두들러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없이 허공에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능하다. 3두들러의 버튼을 누르면 펜촉에서 가열된 액체 플라스틱이 흘러나오며 바로 굳어버리기 때문이다. 일반인들도 몇 시간만 연습하면 복잡한 물체를 금방 만들 수 있다.

3두들러는 고무를 포함해 거의 모든 표면에서 작동해 액세서리·장난감 소품 등 사용자가 만들고 싶어하는 아이템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또 분리된 부분을 먼저 만든 후 이어붙일 수 있다.

/김태균기자 kdt@

다음달 개최되는 '테크플러스'에서 한국에 드로잉하는 3D프린팅펜 '3두들러'가 국내 최초로 시연된다.

내년 상반기 스마트폰서 스팸신고 가능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마트폰에서도 스팸 차단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2010년 말까지는 대부분의 휴대전화에서 스팸 신고가 가능했으나, 이후 국제 표준 문자 규격을 적용한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스팸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국제 규격이 적용된 스마트폰에서도 스팸 신고가 가능하도록 이동통신사 및 국내 제조사와 협의를 추진했으며 내년 상반기 내에 스팸 신고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출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미 출시된 스마트폰은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시 스팸 신고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재영기자

'다크폴' 한·일 동시 출격

엠게임 亞판권 확보…양국 게이머 '잔혹한 해·공 전쟁' 예고

온 국민을 열광시키는 한일전이 온라인 게임에서도 펼쳐진다.

북미와 유럽에서 인기리에 서비스되고 있는 MMORPG '다크폴: 잔혹한 전쟁'(이하 '다크폴')이 30일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공개 서비스된다. 게임포털 엠게임이 아시아 판권을 확보해 양국에 서비스한다.

이 게임이 눈길을 끄는 것은 단 서버 내 한국과 일본의 유저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즉 타 지역 서버를 이용하지 않아도 손쉽게 한일전을 펼칠 수 있다.

실제 지난 8~9월 한국과 일본 공동으로 두 차례 진행한 '다크폴'의 비공개 테스트에서 두 나라의 게이머들은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한국과 일본 각각 5000명씩 총 1만 명 규모로 진행된 2차 비공개 테스트에서는 대규모 한·일 공성전과 한·일 클랜 간 해상전이 펼쳐졌다.

한국과 일본의 테스트 참가자들은 클랜 간 해상전과 공성전을 준비하기 위해 양국 모두 100명 이상의 대규모 클랜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전투를 위해 끊임없이 컨트롤을 익히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기도 했다.

해상전과 공성전이 치러진 테스트 3·4일차에는 평균 플레이 타임이 380분을 상회했고 클랜원 간의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하고 치밀한 전략을 펼쳐 실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특히 한·일 공성전에서는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일본 유저들이 한국의 공성석을 포위하고 거대 함선 2대를 몰고 바다로 진격해 공격을 퍼붓는 등 전략 플레이를 펼쳐 승리를 이끈기도 했다.

사실 일본 게이머들은 온라인게임 종주국이자 각종 e스포츠 대회 상위권을 사실상 독식하고 한국을 내심 부러워하고 있다. 다년동안 같은 동일 서버에서 자존심 대결을 할 수 있는 사례는 매우 드물어 어느 때보다 신작에 대한 기대가 크다.

다크폴은 반복되는 퀘스트를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기존 MMORPG와 달리 캐릭터의 레벨, 퀘스트가 없으며 게임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획득하는 기량 포인트로 자신이 원하는 스킬이나 특성에 투자해 캐릭터를 자유자재로 키울 수 있다.

또 유저가 게임 속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샌드박스형 MMORPG로 북미·유럽 유저 사이에서는 '2013년판 울티마 온라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드코어 논타겟팅 액션을 추구하는 전투 방식을 채택, 사용자의 컨트롤 능력이 중요시되며 아군·적군의 경계 없이 펼쳐지는 짜릿한 유저 간 대전을 통해 상대방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통쾌함을 느낄 수 있다.

/이재훈기자

'어쌔신' 목소리 연기 한·일 대표성우 대결

'드래곤네스트' 엄상현·미도리카와 색다른 매력 발산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성우가 게임 목소리 연기로 맞대결을 벌인다.

MORPG '드래곤네스트'의 개발사 아이덴티티게임즈는 한국의 엄상현, 일본의 미도리카와 히카루가 게임 속 캐릭터 '어쌔신'의 목소리를 맡아 열연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엄상현은 인기 애니메이션 '쿵푸팬더'의 주인공 '포'와 '데스노트'의 '엘', '건담시드'의 '키라 야마토' 등을 연기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어쌔신 역할에서는 과거의 현재를 넘나드는 캐릭터 특유의 이중인격을 실감 나게 연기해 호평을 받았다.

일본 측 어쌔신 목소리를 맡은 미도리카와 히카루는 만화 '슬램덩크'의 '서태웅' 목소리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스타크래프트', '드래곤볼Z' 등에서도 만날 수 있었던 미도리카와 히카루는 미소년을 연상케 하는 매력적인 목소리로 엄상현과는 또 다른 어쌔신의 매력을 맛볼 수 있다.

아이덴티티게임즈 관계자는 "드래곤네스트의 신규 캐릭터 어쌔신은 빠른 이동술과 강한 액션으로 국내뿐 아니라 일본 유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한·일 유명 성우의 각기 다른 매력이 어쌔신 캐릭터에 한층 생동감을 불어넣어 한·일 유저 모두 만족스러운 플레이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마녀모자 쓴 '에오스'…유령 클럽된 '팡야'

게임업계 핼러윈 이벤트

31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게임 업계는 이미 핼러윈 분위기로 가득하다.

NHN엔터테인먼트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에오스'의 핼러윈 파티를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3시간 이상 접속한 모든 이용자들은 핼러윈 특제 호박머리 코스튬 등을 받는다. 이밖에 핼러윈 느낌이 물씬 나는 '마녀 모자'와 신규 탈 것 '코뿔아'가 업데이트된다.

엔트리브소프트는 온라인 골프게임 '팡야'의 핼러윈데이 이벤트를 다음달 7일까지 실시한다. 이용자

는 게임 도중 유령을 발견한 횟수에 따라 '핼러윈 골프 클럽', '핼러윈 랜덤 박스' 등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접속 후 로비에서 핼러윈 이벤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또 다른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

넥슨은 자사 14개 게임에 대대적인 핼러윈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메이플스토리는 다음달 6일까지 '꼬마유령 잡스'와 이벤트를 연다. 퀘스트 완료에 따라 핼러윈 한정판 의자 아이템, 유령 변신 티켓 아이템 등을 받을 수 있다. 서든어택에서는 핼러윈 캐릭터 상자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마비노기는 다음달 7일까지 접속한 이용자에게 이벤트 던전 '으스스한 유령 마을'에 입장할 수 있는 '유령 신부의 초대장'을 증정한다. 바람의나라에서는 핼러윈 특별 아이템 '핼러윈 발레복 의상세트'와 '핼러윈 발레 헤어'를 다음달 6일까지 선보인다.

기타 게임 이벤트 및 자세한 내용은 각 게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윤희기자

'핼러윈 옷' 입은 애니팡

인기 모바일게임 '애니팡' 제작사 선데이토즈는 24일 다양한 애니팡 코스튬 캐릭터들을 선보였다.

애니팡의 일곱 동물 캐릭터 애니(토끼), 아라(병아리), 몽이(원숭이), 핑키(돼지), 루시(고양이), 미키(쥐), 블루(강아지) 등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핼러윈맞이 코스튬 의상을 입고 게임 이용자들을 만난다.

애니팡에 접속하면 배경 화면에서 메인 캐릭터인 애니가 긴 고깔모자를 쓴 마녀로 변신해 쇠마 마녀 아라와 함께 빗자루를 타고 비늘을 난다.

드라큘라 몽이, 악마 루시, 프랑켄슈타인 미키 등도 음산한 유령

의 집을 배경으로 등장해 핼러윈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게임 블록 속 폭탄 '팡'이는 호박폭탄으로 변신해 이용자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준다.

/박성훈기자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Russia

Смелые девушки выгуляли свои у

metro France

Français lynché : la rumeur pédophile rejetée par la justice

프랑스인 2명 마다가스카르서 화형 '충격'

최근 프랑스인 두 명이 마다가스카르에서 화형당한 것에 대해 프랑스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현지에서 실종된 여자아이가 두 프랑스인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여긴 주민들이 이들을 화형에 처한 것.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루머가 돌면서 프랑스 법원은 조사에 나섰다. 숨진 세바스티앙 주달레의 변호사는 현재 그의 죄를 대상으로 가혹 수색이 이뤄졌으며 지인들도 학교 인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metro Colombia

...an responsables de ...dia por alcantarilla

맨홀뚜껑 도둑 극성… 어린이 1명 빠져 사망

최근 콜롬비아 주요 도시에서 맨홀 뚜껑 도둑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고타시에서 두 살배기 아이가 맨홀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아이는 맨홀에 빠져 2시간 넘게 하수구에서 발버둥 쳐다 숨졌다. 구스타보 페트로 보고타 시장은 "맨홀뚜껑 절도범들을 반드시 잡겠다"며 "이들이 검거되면 단순 절도죄뿐만 아니라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etro HongKong

屋裝假狗無窗

공사비 아끼려 창문 안만들고 페인트로 쓱싹

최근 중국 인터넷에 올라온 산둥성 칭다오시의 아파트 사진이 화제다.

이 아파트는 정부 출자로 세워져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중산층·저소득 가정에 분양하는 서민용 주택이다. 최근 세워진 이 아파트에는 얼핏 보면 진짜처럼 보이는 창문들이 줄을 맞춰 외벽에 그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창문이 가짜인 것뿐만 아니라 실내 전등도 전부 훼손되어 있고 심지어 난간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며 "정부가 출연한 자금이 이렇게 사용되는가"라고 비난했다.

정말 시공업체에서 창문 그림을 그리고 건설 자재 비용을 삭감한 것일까?

이 아파트를 찾은 취재진이 창문과 계단에 대해 묻자 현장 근로자는 "이 창문은 외관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한 장식용일 뿐이다. 공용 계단 위치에 그려진 것으로 주민들에게는 그 어떤 영향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인리스로 된 계단 난간은 기울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23일 칭다오시 기획국은 "창문이 그려진 벽면은 지진이나 태풍을 견딜 수 있는 전단벽 구조로 규정에 따라 창을 낼 수 없고, 도면에도 기능성 창이 설계돼 있지 않다. 또 계단 사이 통풍을 확보하기 위해 계단 측면에 통풍창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획국은 "이번 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다"며 "이런 창문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기능적인 문제도 없다. 하지만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아 즉각 시공업체에 보수 공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칭다오=조선미 기자

"실연 까짓것 다려버려요"

러시아 여성들, 모스크바 도심서 다리미 들고 이색 퍼포먼스…새 남자친구 만나기도

러시아 여성들이 실연으로 구겨진 자존심을 다림질 하겠다며 거리에 다리미를 들고 나왔다.

최근 여성 수십 명이 모스크바 시내에서 다리미 퍼포먼스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고 22일(현지시간) 메트로 모스크바가 전했다.

퍼포먼스 참가자들은 거리를 행진하며 행소 방해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던 아스팔트, 남성 자동차, 신호등 등을 다리미로 다리거나 지나가던 행인을 붙잡고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일부 여성들은 다리미 선을 강아지 목줄처럼 쥐고 귀여운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듯 다리미를 끌고 거리를 활보해 시민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짧은 시간 이나 다리미 광고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했던 시민들은 여성들의 절절한 연애 사연을 전해 듣고는 따뜻한 눈길로 퍼포먼스를 응원했다.

퍼포먼스 참가자 율리아는 "처음에는 나 자신이 어색하기도 하고 몇몇 사람들은 손가락을 들어 머리 근처에 돌리며 지금 제정신이냐? 집에서 다림질이나 하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여러 번의 다리미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감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해소돼 즐겁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신호등을 다림질 할 때는 다른 파란불이 아닌 우리의 다리미 수기 신호를 따르는 등 시민들이 퍼포먼스에 동참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가자 발렌티나 리판예바는 "공포와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면서 "퍼포먼스 도중에 멋진 남성을 새로 만난 여성들도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번 퍼포먼스를 기획한 모스크바 심리 트레이닝 센터의 파벨 라코프 국장은 "다리미질 퍼포먼스에는 심리적 장애 요소를 타파하고 좀 더 당당한 여성으로 거듭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며 "다리미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 시 문제점과 자신의 콤플렉스를 다려 반듯하게 만드는 상징물"이라고 설명했다. 라코프 국장은 이어 "다림질 퍼포먼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면서 "향후 모스크바뿐 아니라 러시아 내 다른 도시와 우크라이나에서도 퍼포먼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미트리 부히노 4 기자 정리=조선미 기자

응답하라
1994
팔도청춘 in 서울
촌놈들의 전성시대
매주 금,토 (밤) 8시 40분 tvN 방송
성동일 | 이일화 | 고아라 | 정우 | 김성균 | 유연석 | 손호준 | 바로 | 민도희
이명한 | 신원호 | 이우정

해외 대작 뮤지컬 3편…연말이 즐겁다

'위키드' '고스트' '카르멘' 한국어버전 초연

올 연말 세 편의 해외 대작 뮤지컬이 나란히 한국어 버전 공연 초연에 나선다.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히는 뮤지컬은 단연 브로드웨이 장기 흥행작 '위키드'다. 동화 '오즈의 마법사'의 이야기를 새롭게 창작한 이 작품은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내한 공연이 266억원의 매출, 23만5000명의 관객 동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국내 상연 뮤지컬 사상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바 있다.

옥주현이 박혜나와 함께 주인공인 초록 마녀 엘파바를 번갈아 맡고, 정선아와 김보경이 엘파바 친구인 글린다를 연기한다.

어들은 많은 대사량과 고난도의 노래 때문에 하루 12시간씩 맹연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연은 다음 달 22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샤롯데씨어터에서 열린다. 문의 1577-3363

영화 '사랑과 영혼'을 원작으로 한 영국 웨스트엔드 화제작 '고스트'는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주원과 섹시 가수 아이비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영화 속 패트릭 스웨이즈와 데미 무어가 연기한 남녀 주인공을 맡아 순수한 사랑 연기를 펼친다.

동명의 영화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원작자 브루스 조엘 루빈이 다시 뮤지컬 대본을 맡고, 영화 '해리포터'의 마술 효과를 만들어낸 폴 키이브가 특수 효과를 담당해 영혼이 된 한 남자의 사랑을 구현한 영화의 같은 감동을 다시 선사한다.

공연은 다음달 24일부터 내년 6월까지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개최된다. 문의 (02)557-1987

그동안 오페라·연극·무용 등 다양한 장르로 선보여진 '카르멘'도 뮤지컬 거장 프랭크 와일드혼의 음악으로 한국 관객을 찾는다. 플라멩코·서커스·애크러배틱·공중 살코믹트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마술사 이은결이 만들어낸 수준급 마술을 곁들였다.

바다와 차지연이 열정적인 여인 카르멘에 더블 캐스팅됐다. 12월 6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문의 2005-0114

/박지원기자 [illegible]

★ 보르코시건 시리즈 ★ 명예의 조각들 40화 글 그림 이기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바 형식 무대 '머더 발라드' 온다

내달 5일부터 공연

오프 브로드웨이 신작 뮤지컬 '머더 발라드'가 다음달 국내에 초연된다.

지난해 미국 맨해튼시어터클럽에서 초연 당시 오프 브로드웨이 공연으로는 드물게 연장 공연과 함께 초연 캐스트 레코딩까지 발매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온 작품이다.

결혼 생활에 염증을 느낀 사라와 그의 옛사랑 탐, 남편 마이클의 삼각관계를 다룬다. 록 음악을 기반으로 한 성스루 뮤지컬이며 무대와 객석이 분리된 기존의 공연장과 달리 바 형식의 공연장을 택해 배우와 관객의 거리를 좁힌 무대를 선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배우 김수로가 프로듀서를 맡았다. 뮤지컬 '공혈주의' 연출자 이재준과 '지킬 앤 하이드' '몬테크리스토'의 음악감독 원미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로 제5회 더 뮤지컬 어워즈 연무상을 수상한 인우가 참여한 등 실력파 제작진이 참여했다.

탐 역으로는 배우 최재웅·강태을·한지상·성두섭이 발탁됐고, 사라 역은 그룹 천상지희 더 그레이스의 린아, 가수 임정희, 뮤지컬 배우 박은미·장은아가 맡았다.

공연은 다음달 5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롯데카드 아트센터에서 열린다. 문의 (02)556-5910

/박지원기자

노래·춤으로 그린 박연의 삶

서울예술단의 새 가무극 '푸른 눈 박연'이 다음달 10~17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관객들에게 선보여진다.

이번 작품은 조선 최초의 귀화 서양인인 박연(벨테브레이)의 삶을 노래와 춤으로 그려냈다. 13년간 조선에 머물렀던 헨드릭 하멜이 기록한 '하멜표류기'의 짧은 기록을 바탕으로 됐다.

지난 5월 공연된 '윤동주, 달을 쏘다'의 김수용과 서울예술단 소속의 이시후가 박연으로 번갈아 출연한다.

/박지원기자

"한국군 무기 좋아도 북한 못이긴다"
1588-3600
중앙SUNDAY
"좌우 모두 틀 정해놓고
안 따른다고 나를 공격"
가, 마살라마"

"왕년에 좀 놀던 언니… 이거다 싶었죠"

영화 '밤의 여왕' 두 얼굴 연기

김민정

데뷔 24년만에 첫 로코물 도전
낮엔 완벽한 아내, 밤엔 요부
댄스실력 수준급… 원래 한 춤?
사실 클럽 한번도 안가봤어요

김민정(31)은 12세에 데뷔해 똑 부러지고 때로는 깍쟁이 같은 이미지로 24년째 연기 이력을 탄탄하게 다져오고 있다. 그러나 카메라 밖의 그는 여러 반전 매력을 품고 있다. 한 번 입을 열면 여배우의 보호본능 따위는 버려둔 채 질문과 답변이 산으로 가도록 술술 속내를 털어낸다. 17일 개봉한 '밤의 여왕'은 그의 거침없는 입담과 닮은 영화다.

◆ 또 다른 나, 보여주고 싶어

'밤의 여왕'은 소심한 남편 영수(천정명)가 지성과 미모를 갖춘 현모양처와 결혼하지만 아내 희주(김민정)의 과거를 의심하면서 벌어지는 부부의 갈등과 화해를 다룬 영화다. 김민정이 연기한 희주에 대해 시놉시스상에는 '천사 같은 외모, 일류 호텔급 요리 실력, 3개 국어가 가능한 지적 능력을 지녔고 남편을 위해서라면 낮에는 자상한 아내, 밤에는 요염한 여인으로도 변신한다'고 설명돼 있다.

시나리오에서 희주의 활약은 더욱 구체화된다. 과거 화려한 춤과 뇌쇄적인 매력으로 클럽가를 주름잡았고, 혼자 맨손으로 7명을 때려 눕히는가 하면 거친 욕설을 속사포 랩처럼 쏟아내는 인물이다.

"처음 해보는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어요. 로맨틱 코미디가 처음이고 총·액션·욕설 연기를 해본 적도 단 번도 없죠. 부부 연기도 최초랍니다."

그는 이번 영화에서 작심한 듯 액션과 로맨스, 드라마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팔색조 연기를 펼친다. 그의 매력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화의 재미는 충분하다.

"내 안의 모습들은 참 다채로운데 사람들은 단편적인 것만 인식하고 있죠. 어느 순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몰랐던 이면을 드러내는 시대지만 그것보다 본업인 연기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출연 섭외를 받던 당시를 떠올린 그는 "시나리오가 나한테 가장 먼저 온 것도 아니고 나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은 아니었겠지만 보자마자 '이건 나를 위한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동안 목말라 있던 것들을 마음껏 해소해보자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한달간 댄스가수급 훈련

가장 공을 들이고 눈길을 끈 장면은 세 차례 등장하는 댄스신이다. 남편의 대학 동문회에서 귀엽게 질투하며 추는 춤, 과거 클럽가를 누비던 전성기 시절의 춤, 또 한 번 찾아온 남편의 동문회 파티에서의 춤 등 모두 다른 설정에 맞춰 다양한 안무를 보인다. 심지어 대역 의혹이 들 정도로 빼어난 춤 솜씨를 보여준다.

"지인들이 영화를 보고 대역인지 아닌지 내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아싸' 라고 외쳤죠. 그동안의 고생이 한 번에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3개의 댄스신은 각각 1분 내외로 편집됐지만 한 달 동안 댄스가수에 버금가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

"기본적으로 리듬감은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무를 다 외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영화 '가문의 귀환' 홍보와 액션 훈련까지 겸치면서 정말 고되게 연습했죠. 왕년에 좀 놀아본 것 같다는 말을 들으면 좋겠는데 사실 클럽은 한 번도 안 가봤답니다."

영화 곳곳에서 부각되는 매끈한 몸매도 백미다. 서울의 모든 산을 섭렵했을 정도로 등산 마니아인 그가 각종 운동으로 그동안 다져온 결과물이다.

"화보 제의를 많이 받는데 그것보다 작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 '19금' 노출 연기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탈의를 하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영화에서 공연한 천정명과 열애설에 오르기도 했던 그는 "가끔 외롭기는 하지만 연애를 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을 가졌을 때 좀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사진/올댓아이앤드미디어 디자인/박은지

<日 돔투어 공연실황>

하루 9만장… 동방신기 DVD '대박'

오리콘 1위… 보아 '메시지' 싱글 8위 올라

그룹 동방신기(사진)가 900억원대 투어에 이어 공연 실황으로 또 한 번 돈방석에 앉았다.

이들은 23일 DVD '동방신기 라이브 투어 2013~타임~'을 출시해 오리콘 DVD 음악 부문은 물론 DVD 종합 부문 일간차트 정상에 올랐다. 이 DVD는 하루에만 9만2623장이 팔려나갔다. DVD에는 6월 도쿄돔 공연 실황을 비롯해 일본 5대 돔 투어 공연 실황이 담겼다.

동방신기는 한국 가수 사상 최초로 5대 돔(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오사카 교세라·도쿄)투어를 개최했고 한국 가수 역대 유료 단독 콘서트 최다 관객을 동원한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 공연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총 18회 공연으로 85만 명을 불러모아 한국 가수의 단일 투어 최단 기간 최다 관객 동원 기록을 세웠다.

당시 공연 티켓 가격이 평균 9800엔으로 투어 티켓 판매로만 83억3000만 엔(약 90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번 DVD는 싱글의 4배 가격인 8400엔(약 9만1000원)으로 하루에만 7억7800만 엔(약 85억원)의 DVD 판매 매출을 기록했다. 이로써 동방신기는 단일 투어 티켓 판매와 실황 DVD 판매 매출로 1000억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 된다.

한편 이날 보아는 일본 33번째 싱글 '메시지/콜 마이 네임'을 발표해 싱글 일간차트 8위를 기록하며 10년 이상 정상급 인기를 잇고 있다. 또 같은 날 출시된 김현준의 싱글 '올웨이즈 러브 유'는 일간차트 9위에 올랐다. /유순호기자 sunc@metroseoul.co.kr

김동준 '후유증' 주인공

제국의 아이들 멤버 김동준(사진)이 웹드라마 '후유증'에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지난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동명의 인기 웹툰이 원작인 이 작품에서 학교에서 존재감 없이 지내다 우연한 사고를 당한 후 살인자와 곧 죽을 사람이 보이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는 고등학생 인대용 역을 연기한다. /박진현기자

주진모 "남자는 주먹이지" 출연 배우들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MBC 월화 특별기획 드라마 '기황후'의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능동적 왕비에 끌렸다"

'기황후' 하지원 "자금성 내려다보며 울컥"

배우 하지원(사진 왼쪽)이 주인공을 맡은 MBC 새 월화극 '기황후'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24일 한남동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그는 "기황후가 원나라를 37년간 장악한 데는 부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여인이라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봐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배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제국에 공녀로 끌려가 자력으로 황후에 오르는 능동적인 면에 끌렸다"면서 "얼마나 큰 아픔과 시련을 딛고 황후 자리에 올랐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자금성 세트장에서 황후복을 입고 내려다보는데 울컥했다. 전작인 사극 '다모', '황진이'를 했을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남자 주인공인 고려의 왕 왕유 역을 맡은 주진모(오른쪽)는 역사 왜곡 논란으로 인해 맡은 배역이 충혜왕에서 가상의 왕으로 바뀐 데 대해 "촬영으로 워낙 바빠서 논란 때문에 속상할 겨를이 없다. 논란이 인 부분을 뺐는데 대본과는 많이 다르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장영철·정경순 작가는 "기획 단계부터 역사와 허구가 섞인 팩션사극으로 구상했고, 이를 자막으로도 고지하기로 미리 계획했다"면서 "충혜왕은 역사 문제가 민감한 시점에서 의도치 않게 논란이 일어 이름을 바꿨다. 기황후는 평과 악이 있는 인물인데 드라마에서는 권력을 잡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극 말미에 밝힐 것"이라고 해명했다.

28일 첫 방송될 이 드라마는 원나라에 공녀로 끌려갔지만 황후의 자리에 올라 원제국의 지배자로 군림한 고려 여인 기황후의 사랑과 투쟁을 다룬 50부작 팩션사극이다. 그러나 고려 왕녀를 멸한 기황후와 폐악을 일삼던 충혜왕을 미화시키는 설정으로 역사 왜곡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지원기자 tak0427@metroseoul.co.kr

한예슬 2년만에 돌아온다

드라마 '유성' 출연 검토

드라마 촬영장 무단 이탈로 물의를 빚었던 한예슬(사진)이 2년간의 침묵을 깨고 연예계 복귀에 시동을 건다.

24일 방송가에 따르면 한예슬은 '하왕의 계약시 베르디미니어가' 내년 방송을 목표로 제작 예정인 드라마 '유성'의 출연을 논의 중이다. 이 작품 외에도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출연 제안을 받고 복귀작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웰메이드스의 전속계약이 끝난 그는 빠른 복귀를 위해 새로운 소속사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예슬은 2011년 KBS2 드라마 '스파이 명월' 출연 중 생방송처럼 진행되는 열악한 방송 촬영 제작 환경으로 연예 돌연 촬영을 거부하고 미국으로 떠나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해 영화 '더 폭'에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제작이 무산되면서 복귀가 늦춰졌다. /박진현기자

'트윅스' 끝낸 이준기 亞 투어 나서

드라마 '투윅스'를 마친 배우 이준기(사진)가 아시아투어에 나선다.

이준기는 12월 14일 서울을 시작으로 중국과 일본의 대도시에서 아시아투어 'JG 나이트'를 개최한다. 일본 나고야(1월 27일)·오사카(1월 28일)·요코하마(1월 30일), 중국 베이징(1월 4일)·상하이(1월 11일)·광저우(2월 15일)로 투어 일정을 확정했다.

예년 콘서트 형식의 팬미팅을 개최했던 이준기는 일본에서 음반을 발매하는 등 가수로서도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어 이번 행사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시아의 팬들과 만남을 앞둔 이준기는 "팬 여러분의 사랑에 늘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직접 많은 해외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설레고 기쁘다"고 전했다. 이준기는 당분간 투어에 전념하며 휴식을 취한 뒤 차기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c@

가을남자의 모자 '헌팅캡' 남자의 계절 가을을 맞아 24일 롯데피트인 동대문점을 찾은 남성 고객들이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의 헌팅캡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자산개발 제공

불타는 금요일, 넌 어딨니?

가을 달구는 클럽파티 정보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밤을 집에서만 보낼 수 없다. '불금(불타는 금요일)'을 책임져줄 클럽 파티가 '놀기' 좋아하는 젊은이들을 유혹 중이다.

아영FBC는 핼러윈데이를 맞아 25일 오후 10시 이태원 라운지 클럽 아울에서 '산테로 몬스터 나이트' 파티를 진행한다.

이번 파티에서는 산테로 피노 시르도네 스푸만테를 만나볼 수 있다. 이 와인은 피노비앙코와 시르도네를 반씩 혼합해 만든 이탈리안 드라이 스파클링 와인으로 풍부한 과실 향, 섬세한 거품, 상쾌한 청량감이 특징이다. 산테로 캐릭터 '테로'도 핼러윈데이 버전으로 선보여 보는 즐거움까지 더할 예정이다. 입장료는 1만~2만원.

지포 역시 핼러윈을 테마로 다음달 1일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인 2일 토요일 오전 6시까지 클럽 에덴에서 '지포 나잇' 클럽 파티를 연다.

가장 멋지게 핼러윈 코스튬을 한 '베스트 드레서'를 선발하고 '러키 스로(추첨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지포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가상의 라이터인 지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버추얼 지포 라이터'를 다운받아 입장 시 제시하면 선착순 10명에게 선물을 준다.

'핫'한 패션 피플을 위한 파티도 눈길을 끈다.

패션 쇼핑몰 아이스타일24는 론칭 7주년을 기념해 다음달 15일 클럽 디에이에서 '하니파티 비 글램' 파티를 개최한다.

파티의 콘셉트는 여성들의 글래머러스하고 자신감 넘치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글램'으로 정했다. 힙합뮤지션 범키·산이의 힙합 공연과 함께 디제잉쇼, 각종 이벤트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아이스타일24 회원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총 2500명에게 파티 초대권(1인 2매)을 증정한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현빈 입은 방수재킷 '완판'

K2, 출시 2개월만에

배우 현빈이 '완판남'으로 등극했다.

K2는 지난 8월 선보인 '바이킹 라인'의 방수재킷이 출시 2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모두 팔렸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품은 K2 모델인 현빈이 직접 착용해 '현빈 방수재킷'으로 불리면서 눈길을 끌었다.

방수성과 투습성이 뛰어난 아쿠아벤트 소재를 사용해 외부의 물기는 막아주고 땀은 밖으로 배출해 쾌적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디 라인에 맞춘 입체 패턴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뛰어나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정현우 K2 의류기획팀장은 "현빈 방수 재킷은 캐주얼 등 패션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아웃도어 트렌드와 맞물려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지원기자

뉴스 & 뉴스

몰스킨 '2014 다이어리' 출시

● 노트북 브랜드 몰스킨이 '2014 다이어리'를 선보였다.

대시보드 다이어리는 일주일을 세로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 구성으로 넓은 메모 공간을 제공하여 정리 후에 페이지를 분리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레고, 스타워즈, 피너츠, 어린왕자 등 총 4가지의 한정판 다이어리를 데일리와 위클리 형태로 선보인다.

출산준비 카운셀링 서비스

● 유아복 브랜드 타티네 쇼콜라가 업계 최초로 '출산 준비 카운슬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출산을 앞둔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출산 준비부터 육아용품 선택, 출산 후 육아에 대해 상담해주는 서비스로 전국 60여 개의 타티네 쇼콜라 매장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 www.chocolatbaby.com

피부 저발진 '베비오닉 팬티'

● 생활용품기업 깨끗한나라는 프리미엄 저발진 기저귀 '베비오닉 팬티'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베비오닉 팬티는 pH 균형 유지 성분과 천연 식물 성분의 로션을 함유해 아기 피부를 부드럽게 지켜주는 것이 특징이다. 파워 흡수층과 이중 샘 방지 밴드가 소변을 빠르게 흡수하고 묻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테트라팩코리아 설립 30주년 행사

식음료 전처리 및 무균 포장 기술 기업 테트라팩 코리아가 지난 22일 법인 설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시는 테트라팩 코리아의 30주년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사진 전시·테트라팩 대표 인사말·만찬·기념 영상 감상 순으로 진행됐으며, 테트라팩의 파트너 기업들은 물론 주한 스웨덴 대사 라르스 다니엘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테트라팩 코리아 크리스 캐니멘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에 끊임없이 기여하고자 노력해 온 테트라팩은 앞으로도 열정과 끊임없는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테트라팩은 식음료 전처리·무균 포장 기술 분야에서 정식품·롯데칠성음료·서울우유·빙그레·한국야쿠르트 등 국내 다양한 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박지원기자

세이코 100주년…창업자 이름 딴 한정판

세이코의 공식 수입원 삼정시계가 세이코 100주년을 기념해 창업자의 이름을 딴 시계 '세이코 아스트론 긴타로 핫토리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였다.

세이코는 초창기 제품에 쓰인 'S' 마크와 함께 창업자의 좌우명인 '항상 시대를 앞서간다(One Step Ahead of the Rest)'라는 문구를 제품의 뒷면에 새겼다.

태엽 감는 부분은 오닉스로 마감했고 고강도 티타늄 소재로 케이스를 만들었다. 악어가죽 밴드에 추가로 티타늄 밴드를 제공한다.

GPS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해 세계 각 지역의 타임존을 인식할 수 있다. 국내에는 40개만 선보이며 가격은 520만원이다. 문의 (02)511-3182

/박지원기자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무박 2일 정선 5일장 여행(왼쪽)과 전통식품명인 체험 상품

꿀꺽! '가을 별미' 삼키러 출발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맛 기행 상품들

깊어가는 가을, 제철 별미를 찾아 어디라도 훌쩍 떠나고 싶다. 한국관광공사가 맛난 음식과 가을 정취의 별미를 느낄 수 있는 '맛 기행 상품'을 소개했다.

◆기차 타고 전통시장 방문

꽉 막힌 고속도로를 피해 기차를 이용하는 건 어떨까.

중기청이 후원하고 코레일관광개발이 주관하는 '팔도장터 관광열차'는 전국 곳곳의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상품이다. 전통시장의 먹거리를 자유로이 즐기며 전통시장에서 펼쳐지는 각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주변 관광 명소까지 덤으로 둘러볼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된다.

지역별로 대표적인 전통시장은 강원 정선 5일장, 충북 단양 구경시장, 충남 강경 젓갈시장, 경남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전북 남원공설시장, 전남 나주목 사고을시장 등이며 당일 코스부터 무박 2일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상품별로 2만3000원대부터 6만9000원까지 가격대도 비교적 저렴해 색다른 기차 여행을 즐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명인과 함께하는 전통식품 체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해 전통식품명인 체험 상품을 선보였다. 지역별 식품 명인에게 식품의 우수한 효능과 맛의 비밀에 대해 직접 배울 수 있다. 자녀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으며 아이들에게 전통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기회다.

상품은 ▲식품 명인 23호 최봉석 갈골산자 한과 체험 ▲식품 명인 14호 흑삼리 매실 체험 ▲식품명인 46호 김현의 찹쌀유과 체험 ▲식품 명인 33호 박순애 한과 체험 ▲식품 명인 28호 김동곤 우전차 체험 ▲식품명인 35호 기순도 명인 전장(간장) 체험 등이 있다.

◆별미 여행 상품 패키지

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등이 추천하는 지역 별미 체험 테마여행 역시 놓칠 수 없다.

테마여행은 현지 교통비, 숙박, 별미 음식, 여행자보험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상품으로 취향에 따라 테마여행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함께 동행한 해도 관광지의 알찬 정보와 지역 별미를 맛볼 수 있다. 운전을 하기 싫거나 여행 계획을 짜기 귀찮은 사람에게 알맞은 여행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모바일쇼핑 이용시간 20대 여성이 더 길다

모바일 쇼핑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젊은층일수록 모바일 쇼핑 이용 시간이 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픈마켓 옥션은 자체 회원 1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20대 이용객의 38%는 쇼핑 시간이 20분 이상, 28%는 10~20분가량이라고 응답했다. 9%는 1시간 이상 이용한다고 답했다. 반면에 40대의 경우 41%가 10분 미만이라고 답했고, 5~10분만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34%, 20분 이상 이용객은 25%였다.

성별로는 여성의 이용 시간이 남성보다 길었다. 20분 이상 이용한다는 여성 비율은 42%였고 남성은 28%에 불과했다. /박지원기자

'트럭 점령' 통학길 다시 살린 '대광신호등'

대광고 이주혁군 등 9명 8개월간 민원 노력 결실

꾸준한 관심으로 친구들의 안전을 지켜낸 학생들이 화제다.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대광고등학교 이주혁(3학년) 학생 등이 그 주인공이다.

대광고 진입로인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1번 출구 방면은 지난해 9월 버스 중앙차로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횡단보도, 인도가 사라졌다. 좁은 지도는 인근에서 진행 중인 경전철 공사로 인해 덤프트럭·레미콘 등 대형차량 이동이 빈번했다. 대광고 학생은 물론 인근 주민들은 대형 차량과 버스, 오토바이 등이 지나가는 차도를 걸어 이동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이군(당시 2학년)은 학교 교실과 반에 벽보를 붙여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선 활동을 함께할 친구들을 모았다. 이렇게 모인 공사무일·한태승·대성진(이상 당시 2학년)·이지열·이준희·전준호·주영재·지정현(이상 당시 1학년)군 등 9명은 '대광신호등'이란 모임을 결성하고 등굣길 안전 사각지대 없애기에 나섰다.

대광신호등 회원들은 동대문구청은 물론 서울시청에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접수했다. 하지만 경전철 공사 완료 후 인도를 설치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

회원들은 "민원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통행로를 아예 막아버렸다"며 "학생들은 그나마 있던 좁은 갓길마저도 빼앗기고 아예 차도로 내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결국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로 했다. 해가 바뀌고 학년이 올라 각각 3학년, 2학년이 된 회원들은 현장 답사, 관찰 등을 통해 큰 비용 없이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구상했다.

회원들이 제시한 방법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반려됐으나 회원들이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고 설득시켜 지난 5월 공사 시행 결정을 이끌어냈다. 활동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맺은 결실이었다.

이군은 "친구들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질 수가 없었다"며 "문제를 먼저 인식한 사람이 바로 행동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학생 모임인 대광신호등 회원들은 학생들이 대형 트럭과 같은 도로를 걸어 등교하는 위험한 모습(왼쪽)을 보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갓길 통행을 더 어렵게 해놨다(가운데). 올해 5월 대광신호등 회원들의 노력으로 차도와 분리된 인도가 설치됐다. /사진=이주혁

옛 오진암 있던 자리 앰배서더 호텔 개관

호텔 전문 그룹 아코르 앰배서더는 25일 근대 상업 한옥의 명물인 서울 오진암 부지에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인사동'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호텔은 지상 10층, 지하 2층 규모로 더블룸 185개와 트윈룸 178개를 합쳐 총 363개의 객실을 갖췄다. 부대시설로는 80석 규모의 레스토랑과 바, 미팅룸, 옥상 가든, 사우나, 비즈니스 센터 등이 있다.

인사동 중심가까지 도보로 3분, 명동·청계천·광화문까지는 지도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뿐 아니라 비즈니스 고객까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호텔 측은 기대하고 있다.

송연순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인사동 총지배인은 "현대와 전통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특별한 호텔이 될 것"이라며 "부족한 관광 숙박시설을 확충할 뿐 아니라 인사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코르 앰배서더는 프랑스 계열의 호텔 체인 기업인 아코르와 앰배서더가 설립한 법인으로 인사동 호텔은 강남, 명동, 수원 등에 이은 5번째 이비스 호텔이며 앰배서더그룹에서는 12번째 호텔이다. /김재형기자

30일 세바른병원 강서점 주민대상 '무료척추강좌'

세바른병원 강서점이 30일 오후 3시 본원 10층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척추강좌'를 진행한다.

문병진(사진) 세바른병원 강서점 대표원장이 '허리협착증의 비수술적 치료'를 주제로 척추관협착증의 증상과 발병 원인, 수술 없이도 척추관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척추관협착증은 노화로 인해 척추관이 좁아지는 질환이며 일반인들은 대부분 허리 통증 때문에 허리디스크로 오인하기 쉽다. 강좌는 1시간 정도 진행되며, 인근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Someone is on the line for you. 전화하기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I'm glad we had this lunch meeting today.
B. I would like a follow up meeting.
A. That would be nice. 제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B. What number should I dial to reach the receptionist?
A. Actually, 제 핸드폰으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정답 You can reach me at my office. / you can reach me on my cell phone.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생생영어팁

▶ You keep breaking up
소리가 자꾸 끊기네요

이 말은 전화 도중에 상대방의 목소리가 전파 방해 등으로 끊어져서 자꾸 끊겨 들릴 때 하는 말입니다. break up은 원래 연결되어 있던 것이 중간에 끊기거나 부서지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 간의 우정이나 애정 관계가 끝나는 상황에서도 break up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They broke up.이라고 하면 그들의 애정 관계는 끝났다, 즉 서로 헤어졌다는 뜻입니다.

현재완료시제

▶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며, 'have/has + 과거분사'로 나타낸다.

과거	현재완료
I worked at Apple 3 years ago. (3년 전엔 일했고 지금은 일하지 않음)	I have worked at Apple for 2 years.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있음)
He went to the USA in 2012. (과거에 갔다는 사실만 언급)	He has gone to the USA. (가 버려서 지금은 여기에 없음을 강조)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 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I have cleaned my room. 저는 방 청소를 했어요.
2. Ellen has gone to her hometown.
   엘렌은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3. We have finished the work. 우리는 일을 마쳤어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Please note that any changes to your reservation should be made at least three days prior to your ______ at the hotel.
(A) arrive (B) arrival
(C) arrives (D) arrived

02 ______ offering lightweight clothing, Hurvitz Travel Wear also sells stylish luggage and accessories.
(A) Except (B) Besides
(C) However (D) Unless

01 예약 사항을 변경하시려면 적어도 호텔 도착 3일 전에 하셔야 한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전치사 to의 목적어 자리이며, 대명사 소유격(your)의 수식을 받는 자리이므로 명사인 arrival(도착)을 쓴다.
어휘 prior to ~전에
정답 (B) arrival

02 휴르비츠 여행복은 가벼운 소재의 의류를 제공하는 것 외에 멋진 여행가방과 부속품도 판매한다.
해설 빈칸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므로, 빈칸에 전치사가 와서 명사 앞이 부사구가 되거나 종속 접속사가 와서 부사구(절)가 되어야 한다. 의미상 '제공하는 것 외에'를 나타내는 전치사인 (B) Besides를 써야 한다.
어휘 lightweight 가벼운 stylish 멋진 luggage 여행가방
accessory 부속품
정답 (B) Besides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4.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기

전치사 활용하여 읽기

- 장소 전치사

in ~안에서 라는 뜻으로 실내 공간을 나타내거나, 도시, 국가 주(州)와 같이 넓은 면적의 장소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in Room 306	306호실에서	in the conference room	컨퍼런스룸에서
in Seattle	시애틀에서	in Italy	이탈리아에서

at ~에서라는 뜻으로 구체적인 장소를 표현할 때 사용하며, 주로 큰 건물 이름 앞에 많이 사용됩니다.

at Mason University	Mason 대학교에서	at the Lincoln Art Center	Lincoln 아트센터에서
at JFK Airport	JFK 공항에서	at the Regal Theater	Regal 극장에서

on 길 이름이나 층수와 함께 쓰여 '~가에' '~층에'를 나타냅니다.

on Main Street	Main 가에	on the 5th floor	5층에